

Y에 대하여

1790

1

윤승은 늘 내 눈치를 보곤 했다. 그는 항상 내가 아닌 내 옆의 벽을 보는 것 같았다. 눈 마주치기도 어려워하는 그녀가 어떻게 그런 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걸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세인이 물었다.

“아무것도 아냐”

난 할 말이 없어 대충 얼버무렸다. 아무래도 집에 가야겠다. 나에게는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세인과 할 말은 더 이상 없었다.

“이제 그만 일어나자”

“너 오늘 왜 그래?”

세인의 눈빛은 내 손목을 움켜쥐는 것만 같았다.

“내가 왜? 그냥 피곤해서 그래, 얼른 집 가자.”

나는 상대방도 알고 나도 아는 뻔한 거짓말을 했다. 더 이상 추궁할 수 없는, 대화를 끝내는 신호의 거짓말. 세인은 잠시 멍하니 있었다. 할 말을 찾는 듯했다. 세인은 똑똑한 사람이었다. 내 발화 의도를 모를 리 없었다. 허탈한 표정으로 세인은 그래, 라고 대답했다. 그래. 동의를 의미를 품고 있지만 그것 외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나온 동의는 체념일 뿐이다. 나는 정말 나쁜 애인이다.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그런 질 나쁜 인간. 세인과 헤어져야겠다고 오래 전부터 생각했지만 도통 어떻게 애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아니 어쨌면, 난 너무 비겁해서 그냥 오래오래 세인이 내 곁에 머무르기를 바라는 걸지도 모른다. 난 세인을 사랑하진 않지만 좋아한다. 하지만 그 뿐이었다. 어디 서나 두고두고 생각나는 존재도, 잠에 이루기 전 생각하는 마지막 존재도 아니었다. 내가 세인에게 그런 존재인 것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괴롭고 미안했다. 무게의 차이는 늘 쉽게 티 나는 법이다.

2

세인은 한동안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 나도 세인에게 딱히 연락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윤승은 온갖 장면으로 나타나 내 머리 속을 헤집어

놓았다.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집으러 갈 때면 체육 대회에서 물을 허겁지겁 마시다가 사례가 들린 윤승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항상 급하게 다른 것을 생각하려 노력했지만 결국은 멍하니 머리에 틀어진 영상을 보고만 있게 되었다. 모든 사물에서 윤승을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신기하고 괴로운 일이었다. 눈을 감든 감지 않든 윤승의 얼굴은 선명해 나는 눈을 감을 수도 뜰 수도 없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 아쉬웠다. 미친 듯이 아쉬웠다. 어차피 평소에도 윤승과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더 길었지만, 이젠 그 시간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까마득했다. 내가 물을 쏟든 책을 쓰든 음반을 내든 나는 윤승을 영원히 만날 수 없다. 무력했다. 너무 무력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났지만 퍼부를 대상이 없었다. 나는 휘몰아치는 감정을 꼭꼭 눌러 담아야만 했다. 기분 탓인지 소화도 잘 안되고 온몸이 답답했다. 감정이 내 온 몸을 휘감고 꼭 눌러 눈물도 잘 나오지 않았다. 감정을 수반하고 있는 모든 것은 내 몸 밖으로 나오길 거부하는 것만 같았다. 말도 잘 나오지 않았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고 웃음도 행동도 잘 나오지 않았다. 내 표정은 무표정이 되어, 짐작 할 수 없는 이유로 화난 사람처럼 보였다. 불쾌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고 내 정신은 윤승의 이미지로 잠식되어버렸다. 나는 그녀를 계속 재생했지만 그녀에 대해 깊은 생각은 할 수 없었다. 압축된 슬픔과 실체 없는 짜증, 답이 없는 무력감 같은 것만을 품을 뿐이었다. 감옥에 갇힌 것 같았다. 도대체 문은 보이지 않고, 사다리도 계단도 없는 민무늬의 방에서 창문은 저 높이 뚫려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열려 있었지만 창문은 내가 가기엔 너무 높고 멀었다. 그렇게 난 죄를 짓지도 않은 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전화가 걸려온 것은 한밤중이었다. 꿈인줄 알았는데 핸드폰이 머리 옆에서 기분 나쁘게 진동을 울렸다. 고요한 밤의 진동 소리는 천둥처럼 느껴졌다.

“여보세요”

세인이었다. 그녀는 내 말에 대답하지 않고 울고 있었다. 나는 할 말을 찾지 못해 그냥 잠자코 있었다. 매우 안절부절 했지만 할 말을 딱히 열심히 생각하지도 않았다. 세인은 늘 그랬듯 대화의 물꼬를 터졌다.

“한울아”

“응, 듣고 있어”

“너 이번 주에 윤승이에 대해 생각한 적 있어?”

“아니”

나는 너무도 빠르고 당연하게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

나는 더 이상의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세인이를 더 상처 주고 싶지도 않았다. 이 시점에서 죄책감까지 느끼는 건 나에게서 너무 큰 부담이었다.

“내일 만날래? 맛있는 거 먹자”

“...못된 새끼”

세인이 나에게 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생전 험한 말은 물론, 남 듣기 좋은 말만 하던 그녀였다. 그게 나와 세인이 가진 몇 안 되는 공통점 중 하나이기도 했다. 세인은 분명 나에게 욕을 했지만 나는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말을 듣고 키가 좀 더 커진 느낌이었다. 창문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

“우리가 맨날 가는 곳으로 5시까지 나와.”

“알겠어.”

나는 세인이 먼저 끊을 때까지 잠자코 듣고 있었다. 세인은 한참을 끊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나는 그 시간을 죄인처럼 속죄하는 데에 썼다. 마침내 전화가 끊겼을 때 나는 나의 뻔뻔함에 놀랐다. 내가 세인에게 가장 못되게 한 순간이자 내가 세인에게 가장 잘 한 기억이었다.

3

나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그 사실을 외면하는 법을 조금 더 터득하게 되었다. 나는 자꾸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생각을 하지 않고, 보려고 노력했다. 내 눈에 담기는 모든 것들. 침대가 보인다 나는 충전기에서 핸드폰을 분리한다 핸드폰이다 핸드폰 안에는 밀린 문자 몇 개가 보인다 문자를 읽는다 윤승은 교실에서 책을 자주 읽곤 했는데 멈춰야 한다 키보드를 쳐서 문자를 보낸다 윤승은 책을 읽는 것만큼 글 쓰는 것도 참 좋아했었다 한 번은 자신이 쓴 시를 읽어보라고 보여주기도 했었다 나는 그 시가 너무 좋아서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윤승에게 꼭 시인이 되라고 말했다 윤승은 그냥 가만히 웃을 뿐이었다 윤승이 제일 좋아하던 작가는 최진영이었고 그래서 나는 구의 증명을 읽기 시작했었다 생각이 밀려온다 핸드폰을 내려놔야겠다. 난 일어나서 화장실로 향한다 익숙한 벽과 바닥과 가구들은 너무 낮이 익어 쉽게 지나치게 된다 생각이 밀려온다 윤승은 언제나 무언가를 골똘히 보곤 했지 나는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 생각이 밀려온다는 말을 내 머릿속에서 자꾸 반복한다 선생님이 시켜 흥미도 없는 영어 단어를 반복해서 외우는 아이처럼 나는 자꾸만 의미 없는 구절을 반복한다 생각이 밀려온다 나는 칫솔을 집었다 칫솔에 치약을 묻힌다 이런, 너무 많이 찼다 이것에 반응하면 안 된다 손의 힘 조절을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 생각이 끝이 없이 밀려온다 마치 내가 솔직하지 못했던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처럼 나의 진심을 조절하지 못한 것을 평생껏 미워하는 것처럼 빨리 칫솔을 입 안으로 집어넣자 이빨을 닦자 초등학교 때 틀어줬던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동영상 속의 아이처럼 이빨을 닦자 그 아이가 이빨 닦는 것을 보려고 노력한다 아이의 눈동자가 까맣다 모든 것을 품을 것만 같은 먹색 윤승의 눈동자처럼..... 이빨이 어느 정도 닦였다. 치약이 부풀어 올라 내 입을 넘어 턱으로 흐른다 분홍빛 솜사탕이 부풀어 오르는 걸 윤승은 지켜보고 있었지 그것을 집어 드는 그녀의 손길은 나는 손으로 치약을 닦아낸다 튼, 치약을 뱉는다. 잠깐 숨을 쉬는 사이 다시 윤승이 비집고 들어온다 윤승과 이빨을 닦던 장면을 본다 점심시간이 끝나면 윤승은 얼마간 산책을 한 후 칫솔 세트를 집어 들고 화장실로 향하곤 했다 아이들이 물리는 시간은 12시 50분쯤이니깐 그 전엔 가야된다고 항상 걸음을 서두르곤 했다 그만, 꺼야 된다. 물로 입 안을 헹군다 미지근한 물을 받았더니 기분이 별로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양전한 척 하는 그것이 징그러워 다시 찬물을 툰다. 찬물로 입을 헹구낸다 언제까지 헹구야 치약이 가실지 잘 모르겠다. 컵에 물을 받고 그것을 삼키고 뱉는 일이 슬슬 질릴 때쯤 그만 둔다.

이빨 닦는 일이 이렇게 피곤한 거였다.

“오랜만이네”

세인이 말을 건네온다.

“그러게”

나는 세인을 쳐다보지 못한다. 세인에게 너무 미안하고, 나는 너무 힘들다. 아직 내 생각도 정리가 안됐는데, 세인의 생각까지 정리해줄 여유가 없다.

“요즘 뭐하고 지냈어?”

이런. 뭐라고 답하지.

“나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지냈지”

“그래? 아무것도 안하는 건 어땠어?”

“길고 지루했어.”

“그렇게 지루했어?”

“응. 정말 지루했어.”

“그렇게 지루한데 애인한테 연락 한 통 안했어?”

“...”

째깍째깍.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린다.

“세인아.”

“응.”

“우리 헤어지자”

“너 진짜 갈수록 도를 넘는구나.”

반박할 수 없다.

세인이 울음을 터트린다. 나는 그 울음을 이해하기에 건딜 수가 없다. 그 울음이 세인의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다 봐왔던 건 내가 아닌가. 그리고 그걸 시작시킨 건 내가 아닌가.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까지 된 것일까. 연애를 가며 여기고 시작한 것의 최후는 너무 감당할 수 없이 커졌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면 나도 행복해지고 그 사람도 행복해질 줄 알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관계라고 일컬어지는 것이 그렇게 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어디서부터. 세인의 마음을 받아준 그 순간부터? 내 마음을 모르겠다는 이유로 깊은 사고를 멈춘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어딘가 어긋나고 있고 그건 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도 멈추지 않은 순간부터? 뻔뻔하지 못한 가해자는 자신의 죄책감으로 처벌을 받는다.

“말해. 네 입으로 말하고 가.”

“뭘?”

“왜 헤어지고 싶은지. 나랑 왜 헤어져야 하는지 말하고 가라고.”

“그냥, 난 너에게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세인아.”

난 끝까지 비겁하다. 내 대사는 비굴하고 진부하다.

“넌 윤승이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건딜 수 없다. 변명거리가 없다. 난 내 잘못을 너무 잘 알고 내 잘못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

난 최악의 선택을 내린다.

“맞아. 진짜 미안해서 미치겠어. 나 사실 너 말고 윤승이 사랑해. 세인아, 정말 미안해. 네

마음을 받아주면 모든 게 달라질 줄 알았어.”

세인은 자리를 박차고 나간다. 예상했던 시나리오였다. 불쾌한 결말이다. 이건 너무 불쾌하다. 이 이야기는 너무 불쾌하다. 답답하고 짜증난다. 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니.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난 원망할 사람조차 없다. 이 모든 기분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내가 진다.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꼬게 된 건 다 내 불찰이다. 정말로 감옥에 갇힌 기분이다. 습하고 답답한 이 감옥은 견디기 너무 힘들다. 한숨을 쉬어도 달라지는 건 없다. 울고 난리를 쳐도 달라지는 건 없다. 무력해서 그냥 바닥에 달라붙어 높은 천장을 바라본다. 이제 창문도 보이지 않는다. 창문이 있었던 건 내 착각이었나. 이제 정말 모르겠다.

5

윤승을 처음 봤던 순간을 생각한다. D여고에 배정되고, 반 배치고사를 보기 위해 성에 흠을 가진 아이들이 앉아 있는 교실로 들어갔다. 그곳엔 세인의 자리도, 윤승의 자리도, 나의 자리도 있었다. 한세인, 한한을, 현윤승. 우리의 자리는 세로로 나란했다. 세인은 일찍 도착해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컴퓨터 사인펜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나는 칠판에서 내 자리를 확인한 후 세인의 뒤에 앉았다. 내 뒷자리인 윤승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었다. 나는 누가 내 뒤에 앉게 될 현윤승이 누구일지 궁금해 한참동안 앞문을 쳐다봤다. 몇 명이 다른 자리에 착석하고 시험이 시작하기 10분 전쯤 윤승이 약간 숨을 헐떡이며 앞문으로 들어왔다. 인상이 또렷한 아이였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녀의 눈은 꽤 선명하게 빛났다. 윤승은 내 시야에서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내 뒷자리에 착석했다. 그녀가 내 앞을 지나칠 때 나는 급히 책상을 쳐다봤다. 시험이 시작되었지만 집중은 잘 되지 않았다. 뒷자리에 앉았을 윤승이 쳐다볼 내 뒤통수가 신경 쓰여 자꾸만 머리를 만지작거렸다. 하얀 시험지 위로 까만 윤승의 눈동자를 기억했다. 시험 점수는 엉망이었다.

6

윤승은 내 신경을 많이 차지한 아이였다. 반면 세인은 아니었다. 세인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세인과 노는 것은 어색하지 않았고, 세인의 말과 행동과 표정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내 신경을 특별히 쓰이게 하지 않았다. 함께 있으면 편하고 재밌어서 세인이 좋았다. 윤승이 아니었으면 세인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어디에 있던 옥의 티처럼 윤승은 눈에 띄었다. 나의 눈은 자주 윤승의 시선을 따라갔다. 윤승은 다른 사람들보다 꽤 높은 빈도로 세인을 봤다. 세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 다른 것도 나는 알 수 있었다. 가끔은 열은 미소를 띠고 있기도 했다. 난 윤승을 보는 만큼 세인을 보기 시작했다. 윤승을 보고, 세인을 봤다. 그럴 땐 종종 눈이 마주치곤 했다. 그러다 윤승과도 난 종종 눈이 마주치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세 번의 가을이 지나고 우리는 비로소 D여고를 졸업할 수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것을 기대하던 시간이 찾아왔다. 삼년 내내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지만 그 눈빛의 의미를 전하진 않았다. 그 비굴함을 가장 먼저 깨 것은 윤승이었다. 윤승은 세인에게 긴 편지를 썼고, 답은 영영 받을 수 없었다. 대신, 세인의 글들은 나를 향했다. 나는 끝까지 비굴했고 여전히 비굴한 인간이므로 세인에게 답장을 썼다. 하얀 편지지에서 나는 계속 까만 윤승의 눈동자를 떠올렸다.

세인에게

나도 그 날을 기억해. 너는 유난히 까만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어. 어떤 일들은 원치 않아도 그냥 내 안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어. 무력감이 설레게 느껴지는 건 생경한 경험이었어. 아직도 그래. 나에게 먼저 다가와 줘서 고마워 세인아, 너랑 꼭 친해지고 싶었거든.

있지, 나도 네가 좋아. 이런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부끄러워서 그러지 못했어. 이런 내 마음도 괜찮다고 해주면 나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아. 네가 무언가를 골똘히 바라볼 때면 항상 궁금했어. 너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어딘지, 그 안에서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얻는지. 네가 듣는 노래부터 말들까지 전부 다 궁금했어. 왜 그 노래를 듣는지, 그 노래의 어떤 부분이 너를 잡아끄는지, 사람들이 너에게 하는 말들은 무엇일지, 너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들을 다 전하고 있긴 한 건지, 그 모든 것들이 궁금했어.

세인아, 마음을 표현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이번 해가 다 가기 전에 빨리 만나자. 너와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

2007년의 겨울, 한울이가

세인은 그 편지가 자신에게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거짓말을 모르는 척 했다. 눈빛이 아니라 글자로 서로를 봤고, 글자로 서로를 이해했다. 세인도 나도, 그렇게 하는 쪽이 훨씬 편했다.

옷장에서 검은 옷을 꺼내서 입는 내내 토할 것 같았다. 기분 나쁘게 걸쭉한 것들이 자꾸 내 안에서 울렁거렸다. 다섯 번째로 연 서랍장에서 비로소 봉투를 찾을 수 있었다. 지갑에서 꺼낸 지폐를 봉투 속으로 집어넣으려는 손이 자꾸만 미끄러졌다. 몇 번을 시도하다 간신히 넣은 그 현금 다발을 들고 밖을 나섰다. 택시 기사님께 목적지 이름을 대자 기사님은 백미러를 통해 잠시 내 눈치를 살피곤 이내 까만 저녁 속으로 운전을 시작했다. 차가 거의 없는 골목을 지나 큰 도로로 나가니 검은 색은 성가시다는 듯 도로

위의 차들은 일제히 번쩍거리는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다들 집으로 향하는 시간에 나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도로를 내어주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다. 나는 차들의 불빛이 없어지길 바라는 것을 단념하고 그냥 시선을 내 옷으로 돌렸다. 까만 나의 셔츠와 바지를 바라보기 위해 고개를 더 웅크렸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 이내 차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기계적으로 돈을 건네고 거스름돈을 받으며 감사하다는 인사를 읊조리고 차에서 내렸다. 무거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 안내 데스크 옆 LED 전광판에서 빛나고 있는 윤승의 이름을 보았다. 그 세 글자를 얼마간 보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누가 나의 어깨를 살짝 건드려 비로소 고개를 돌렸다. 세인이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없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다. 윤승은 그의 수능 접수 사진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날 후로 세인과 나는 일주일 간 연락을 하지 않았다. 서로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없다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었다. 윤승은 끝까지 솔직했다. 그는 세상에 마지막으로 긴 편지를 남기고 갔다. 자신의 우울은 멈출 줄 모르고 심해져갔고, 인생은 자신에게 팬찮아질 여지를 도무지 주지 않았다고 편지에서 윤승은 말했다. 행복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것을 이제는 사절하고 싶다고 했다.

까만 밤이 올 때면 윤승을 생각한다.

하얀 편지지를 윤승에게 전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윤승의 채도가 조금 열어질 수 있었을까. 감정들이 조금은 느슨해져 윤승을 질식시키지 않을 수 있었을까, 다른 시간 말고 이 시간 속에 윤승이 조금 더 오래 머무를 수 있었을까. 거울을 꺼내어 자신의 눈을 한 번 더 깊이 볼 수 있었을까. 감정을 느끼는 것을 사절하는 지경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을까. 적어도 비겁한 겁쟁이들의 거짓말을 견뎌내는 것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었었겠지.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을 얘기할 때 혼자만 진심을 떠드는 바보가 된 것 같다는 기분 따위는 느끼지 않아도 되었었겠지. 끔찍하게도 외롭다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었었겠지.

하지만 만약은 오지 않기엔 나는 검은 밤마다 종이를 꺼내어 편지를 썼다.

영원히 대답이 없을 편지를 썼다.